

세계에 새겨진 '동학혁명의 기록'

정읍시, 유네스코 등재기념 특별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년 4월까지 국내 박물관 소장 기록물 40여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기념 특별전'이 내년 4월까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이어진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을 주제로 평등과 정의, 인권과 자주, 그리고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된 기록물 전시회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13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소장 중인 40여점의 기록물이 선보인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에서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기했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총 185건의 문헌이다.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등 기록 주체에 따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지난 5일 개막식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전시회 관련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됨으로써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돼 민주,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전시 주제는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에서 혁명의 기원을,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집값소를 세우다'에서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조명한다.

또 3부 '자주와 항전의 기록?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에서는 외세에 맞선 저항을,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주주의의 뿌리가 되다'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로 자리잡은 과정

을 다룬다. 이와 함께 기념관 2층에는 '필목으로써 내려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서예 작품 58점이 전시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9월 국제학술대회부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정읍시와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명의 도시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기록물 관련 선양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순환골재 재활용 5.6억 절감 '국무총리상'

우수활용 사례 발표·전문가 세미나 환경 보전 기여...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도로 및 인도 개량공사 등에서 순환골재 재활용률을 높여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우수행정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정읍시는 순환골재와 재생 아스콘을 활용한 자체 친환경 정책 사례로 최근 열린 '2024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활용 사례 발표 및 전문가 세미나'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순환골재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주관해 열렸다.

시는 '순환골재·재생아스콘 활용을 통한 업사이클링 정책 기여'를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통해 예산 절감과 환경 보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2년간 관내 산업단지 도로 및 인도 개량공사에 순환골재 1만1217㎥와 재생 아스콘 3423t을 사용해 5억6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다.

이 금액은 천연자재 대비 47.7%에 해당하는 절



'2024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 및 전문가세미나'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정읍시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감 효과로 자원 순환을 통한 비용 절감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환골재의 현행의

무사용 기준인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의무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해 자원 재활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의 맛' 한마디로 한다면?

남원시, 네이밍·BI·영상 공모전...12월10일까지

"준향골의 진정한 맛은 무엇일까?.." 남원시가 '남원의 맛을 찾아서'란 주제로 '남원의 맛' 공모전을 실시한다.

오는 12월10일까지 진행될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남원의 맛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과 BI(Business Identity), 남원의 맛집을 찾는 영상 공모전까지 국민참여형 브랜드개발 차원에서 기획됐다.

네이밍과 BI 부문은 내부 심사와 온라인 투표로 최종 선정되며 BI 최우수작에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빅데이터로 조사된 남원의 맛집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 공모전은 ▲최우수작 1편 200만원 ▲우수작 2편 각 150만원 ▲장려작 10편 각 30만원 등 총 15명에게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세부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별도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맛의 고장 남원을 널리 알리겠다"며 "남원의 맛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공급 2.5배 확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배양장에서 한 농업인이 자신의 차량보관용기에 미생물제를 담고 있다. <고창군 제공>

년 360t→950t...생산성 향상

고창군의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량이 연간 360t에서 950t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유용미생물배양장에 단일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증설하고 부지 내에 고온성미생물 배양장을 신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배양장 신축으로 미생물 공급이 확대돼 연작 장애가 줄어들어 토양 환경이 개선되고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토양 속 오염물질을 분해해 환경을 정화하며 항생물질을 생성해 작물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뿐 아니라 축산업과 수산업에서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매년 3000여 농가가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이용 중이다.

대표적인 유용미생물로는 EM과 광합성균, 고초균, 고온성미생물, 불가사리 액비가 있다. 유용미생물은 농작물의 생육 개선은 물론 토양 환경 개선, 생장 촉진, 추사 약취 감소에 효과가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농축산업 종사자 및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예술인 교류의 장 '정읍 국제아트페스티벌'

세계 56개국 330명 작가 우수작 180점 전시...다음달 25일까지

정읍시가 경남 거제시와 공동으로 '제4회 정읍 국제아트페스티벌'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월25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존의 언어, 예술'을 주제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온 예술가 330여명의 작품작 360점 중에서 우수작 180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며 작품도 절반이 90점이 공개

된다. 이어 2차 전시는 12월1일부터 25일까지로 남은 90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의 문화수준이 한층 높아진 만큼 이번 페스티벌이 국내외 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정읍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